

'열하일기' 입문자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

열하일기 첫 걸음

박수밀 지음

'열하일기'는 '우리 고전 최고의 모험 서사'로 꼽힌다. 조선 후기 지성인 연암 박지원(1737~1805)이 당시 세계의 중심, 중국을 여행하면서 쓴 기행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문학사가 아니다. 연암이 중국대륙을 여행하면서 깨달은 사유와 세계에 대한 열망, 천하대세의 비전을 담은 글이다.

연암은 1780년(정조 5) 삼중형 명원을 따라 북경에 들른다. 명원이 청나라 건륭제의 철손 잔치에 진하사로 초청되자 함께 동행한 것이다. 당시 그는 중국의 역사와 지리, 풍속에 대한 내용을 글로 썼다. 여기에는 문학과 예술, 건축, 의학, 종교에 이를 만큼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열하일기'는 요즘으로 치면 연암의 대표 베스트셀러다. 자신의 공력을 쏟아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데 다양한 사상을 아울렀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여행기를 펴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우리의 문학이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을까.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학적 성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을까.

'열하일기' 입문자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이듬하여 '열하일기 첫 걸음'. 저자는 지금까지 '연암 산문집',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등 박지원의 창의적 생각과 인문정신을 책으로 묶어냈던 박수밀 박사다. "박지원의 합리적 이성, 이덕무의 온화한 성품, 박제가의 뜨거운



이상을 품으려 한다"는 저자는 이번 책에서 열하일기 읽는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모두 네 가지 방식으로 '열하일기'를 접할 수 있다고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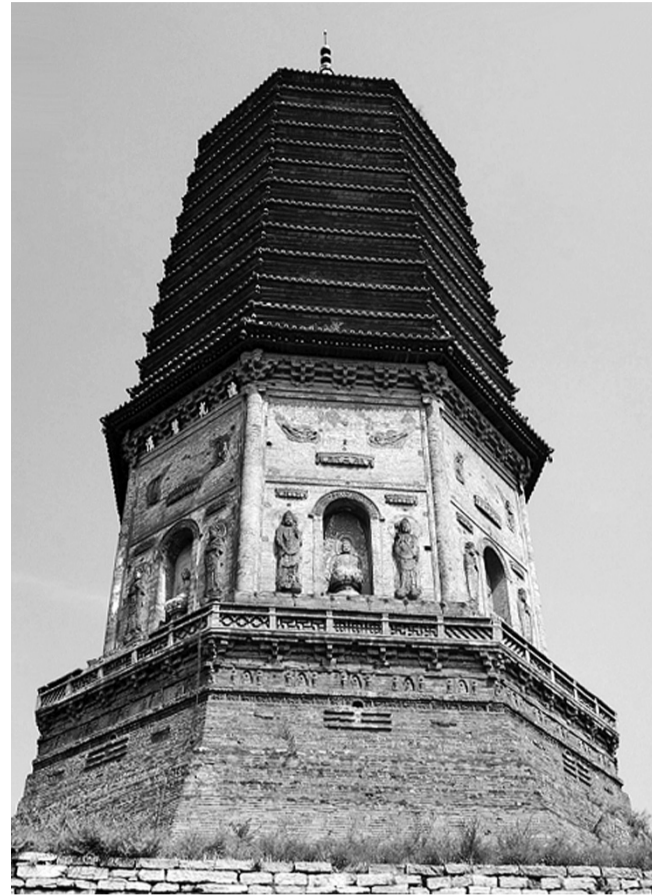
이 하나로 떠나는 모습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이다.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연암을 돕는 조력자가 되는 등 모험 성격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열하일기'는 '우언문학'(寓言文學)이므로, 비유와 상징을 찾는데 묘미가 있다. '다른 사물에 빗대 의견이나 교훈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말'을 우언이라고 한다. 연암의 다른 작품 '호질' 또한 전체가 우언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언어 이면에 드러워진 감추어진 의도를 찾아 읽다보면 일말의 연암의 사유를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내가 이 책에 담은 이야기는 열하일기가 보여 주는 넓고도 풍부한 세계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25년 이상을 연암에 집중하면서, 연

암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민을 엿보고자 했던 흔적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겼다"고 말했다.

〈돌베개·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드넓은 요양 별판을 배경으로 서 있는 71m 높이의 요동 백탑은 많은 사신들이 으름의 장관으로 꼽혔다. 연암도 '요동백탑기'를 남겼다. <돌베개 제공>

암과 호흡하고 대화하고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민을 엿보고자 했던 흔적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겼다"고 말했다.

〈돌베개·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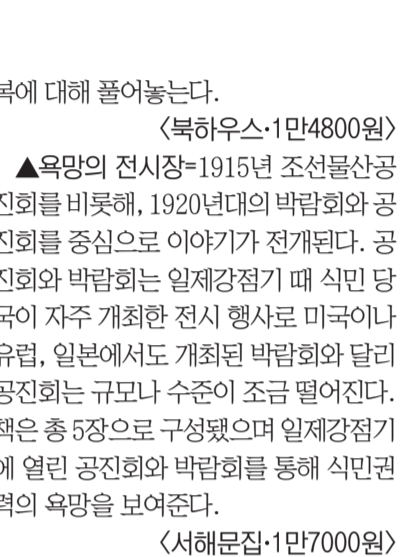
▲기타와 바게트=2014년 오장환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시인 리호의 첫 시집이다.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우리가 사는 지구별 곳곳의 다양한 문화 양상을 그렸다. 특정한 사회적 관습이나 풍습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발랄한 관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지구촌의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는 시인 특유의 시세계를 만날 수 있다.

▲<문학수첩·8000원>
▲<있어빌리티 교양수업> 생활 속의 물리학= 왜 식물은 모두 초록색인지, 왜 자동차는 썩는 소리를 내며 달리는지, 어디까지 하늘이고 어디부터 우주인지 등 등 책은 우주의 작동 원리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물리학자, 입자, 천체, 우주학, 날씨, 물질, 컴퓨터와 전자기 등 11개 카테고리 나뉘며 각 장의 말미에는 10개의 스피드퀴즈가 준비돼 있다.

▲<토티·1만5000원>
▲<해리 포터를 읽는 시간>=해리 포터 시리즈를 읽으며 청년기를 보낸 엄마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읽으며 유년기를 보낸 세 아이가 함께 해리 포터의 추억을 공유하는 이야기다. 저자는 해리 포터의 세계가 젊은 날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었는지, 결혼 후 아이들과 자신을 얼마나 진하게 이어주었는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그동안의 경험과 기억, 불안과 슬픔, 그리고 행복에 대해 풀어놓는다.

▲<북하우스·1만4800원>
▲<옥망의 전시장>=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비롯해, 1920년대의 박람회와 공진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공진회와 박람회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 당국이 자주 개최한 전시 행사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개최된 박람회와 달리 공진회는 규모나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일제강점기에 열린 공진회와 박람회를 통해 식민 권력의 욕망을 보여준다.

▲<서해문집·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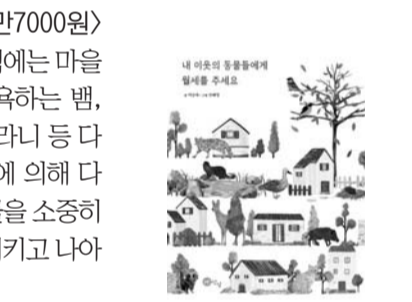
▲<슈퍼 토끼>=그림책 '슈퍼 거북'의 후속작이다. '슈퍼 거북'에서 거북이 구름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토끼 재빨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패배를 맞은 재빨리는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나는 훈련 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토끼로 거듭난다. 재빨리의 감정 변화를 세심하면서도 재치 있게 그렸으며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다는 위로로 전한다.

▲<내 이웃의 동물들에게 월세를 주세요>=책에는 마을로 내려온 멧돼지, 강에서 낚시 수달, 일광욕하는 뱀, 고양이를 닮은 귀여운 새끼 샴, 밧방울의 고라니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에게 의해 다 치거나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다. 저자는 동물을 소중히 지키고 아끼는 일이 자연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나아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책읽는곰>=책에는 마을로 내려온 멧돼지, 강에서 낚시 수달, 일광욕하는 뱀, 고양이를 닮은 귀여운 새끼 샴, 밧방울의 고라니 등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에게 의해 다 치거나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다. 저자는 동물을 소중히 지키고 아끼는 일이 자연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나아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원 들어주는 풍선껌>=주인공 방실이의 엄마, 아빠는 방실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 치킨 장사에만 몰두한다. 홀로 시간을 보내던 방실이는 어느 날 길에서 껌을 하나 씹는다. 심심해서 씹은 껌을 푸우 불자 풍선이 뭉뚱보다 커지고 만다. 이 풍선을 타고 뜻밖의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방실이네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되새겨 보게 한다.

▲<주니어김영사·1만1800원>



예술인이 가장 아끼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

예술가와 사물들

장석주 지음

소설가 존 스타인벡은 유명한 연필 애호가였다. 날마다 여섯시간씩 손에 연필을 쥐고 초고를 쓴 그는 자신이 연필을 손에 쥘 수 있는 동물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품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연필을 수십 자루 한꺼번에 구입해 썼는데 '블랙윙 602'는 그가 찬탄해 마지 않는 연필이었다. 1998년 602 생산이 중단됐을 때는 '뉴요커' 등이 블랙윙 예찬 기사를 쓸 정도로 별명의 지위를 얻었다.

1904년 미국 유타주에 온 소년 '리틀 유'는 낯선 땅에서 성공신화를 쓴 후 한국으로 돌아와 제약회사를 일궈낸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건 구두 두 켤레,



양복 세 벌이었다. 딸에겐 땅 5천평을 물려주고 아들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자립해 살거라" 유언을 남겼다. 그는 미국을 떠날 때 서재의 책사에게서 선물받은 '버드나무 목각화'를 평생 마음에 담는다. 이후 이 목각화는 그의 기업 상표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 이야기다.

후고보 시절 야구선수였던 화가 이쾌대에게는 '야구배트와 볼'이, 혁명가 체게바라에게는 네루다의 작품 등 69편의 시를 필사한 '녹색 노트'가, 시인 백석에게는 맥고 모자가 평생 우정을 나누는 '사

물'이었다.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장석주가 펴낸 '예술가와 사물들'은 예술가들의 생애를 압축하면서 그들의 운명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사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물 예찬 에세이다. '사물과의 우정과 연대'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곤 하는 저자가 풀어내는 건 '사물의 섬광과 아름다움을 취하고 그것을 향한 애착과 함께 제 운명의 도약대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사물에 바치는 송가(頌歌)'다.

'예술가의 수첩', '시인의 편지', '철학자의 가방', '소설가의 모터사이클' 4장으로 이뤄진 책에는 130여명 예술가와 사물 이야기가 담겼다. 각각의 글은 두 페이지 분량으로 아주 짧지만 예술가들의 사소한 일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물들과 어떻게 함께했는지, 흥미롭게 다루

고 있다.

책에는 작가, 화가, 가수, 배우 등 다양한 직군의 동서양 예술가들과 우산, LP판, 보정기, 담배, 자전거, 스키프 등 온갖 사물들이 등장한다.

무용가 피나 바우슈에게는 무대를 만드는 데 쏟은 노고를 푸는 데 '담배 한 개비' 만한 게 없었고, '사진의 구도자' 브레송에게 '라이카 카메라'가, 권투선수 출신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게 현 책방에서 만난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집이 최고의 친구였다.

책 말미에 실린 긴 비평문 '사물의 시학'에서 저자는 사물을 "날마다 접하는 삶의 조력자인 것, 내면의 필요에 부응하며 말없이 굳건한 것, 절정의 순간에 지는 꽃처럼 덧없고 덧없어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글마다 글의 내용을 한 눈에 감지할 수 있는 이명호의 일러스트가 담겼다.

〈교유서가·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매매대상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